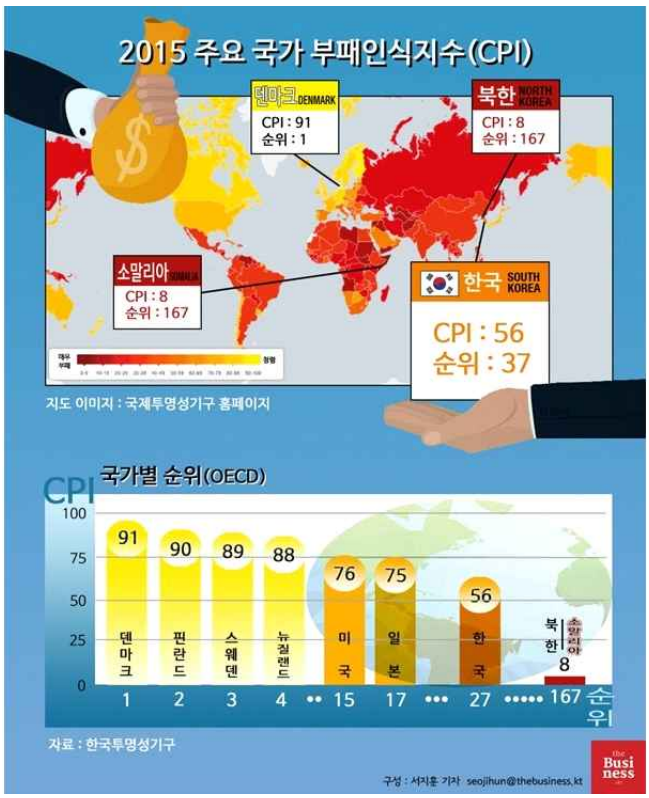
청소년의 윤리·정직 의식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 방안 모색 연구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대표
스마트선교아카데미 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장
(daniel@cleancontents.org)

I. 들어가며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로 건강한 나라인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의 절반가량인 56점으로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이에 정부와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어떠할까? 2015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윤리·정직 의식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윤리·정직지수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사단 본부, 서울지부, 부산지부, 인천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경북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 춘천지부, 전주지부, 창원지부, 진주지부, 함양지부가 참여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청소년은 전국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유효 응답자 4,820명(초등학생 1,427명, 중학생 2,045명, 고교학생 1,348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청소년 정직지수와 윤리의식을 파악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 %p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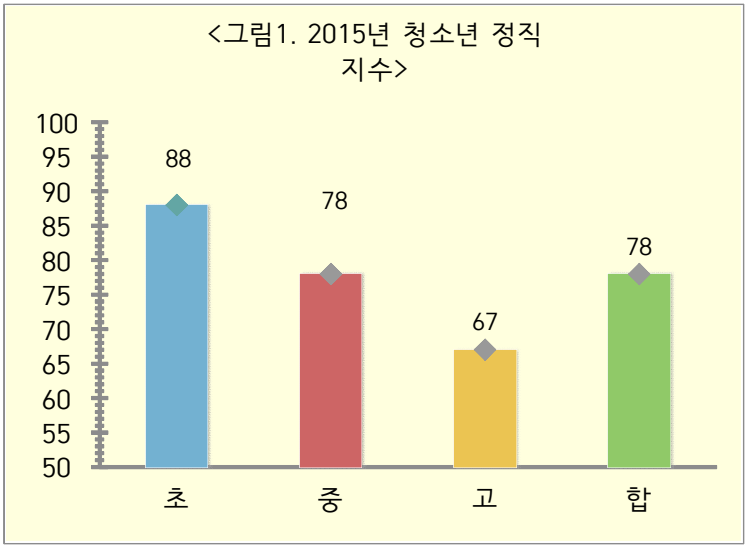
<표 1>.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표본설계 조사 요약

구 분	표본설계 조사 요약
1 대상지역	▪ 전국
2 대상연령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 설문조사 11,000명 ▪ 분석응답 : 유효설문 응답자 전국의 청소년 4,820명 초등학생 1,427명, 중학생 2,045명, 고등학생 1,348명 ▪ 조사방법 : 지역별 균등배분 학교별 설문지 발송 - 회송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15년 9월 1일 ~ 10월 10일 (40일간)
4 표본오차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 %p

Ⅱ. 청소년 윤리·정직 의식 현황 조사 결과

2015년 청소년 윤리·정직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전체 윤리·정직지수는 78점으로(100점 만점)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88점, 중학생 78점, 고교학생 67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윤리·정직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및 교회에서 윤리와 정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나타내게 한다.

<그림1. 2015년 청소년 정직 지수>



1) 윤리·정직 지수 부문별 분석

청소년에게 조사된 25개 문항은 크게 **친구,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5개 부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들의 인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언론 등에서 학습되어진 불법이나 탈세 같은 규범적인 사회영역에서는 다소 정직한 선택을 하는 반면 친구간의 윤리·정직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학생은 학교 생활의 윤리•정직성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은 가정에서의 윤리·정직성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단절과 소통부재라는 세태가 드러난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3년 정직지수보다 2015년 정직지수가 작은 차이나마 높아졌으나 고등학생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부문별 분석

부 문	청소년 전체		초등		중등		고등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정직지수 [100점 환산]	**78.1**	74.2	**87.9**	83.5	**78.2**	72.5	**67.4**	67.8
학 교	**76.1**	72.7	**88.2**	82.0	**75.2**	70.2	**64.8**	67.1
사 회	**82.8**	80.3	**90.8**	88.2	**82.6**	78.8	**74.7**	75.0
가 정	**76.9**	72.8	**88.4**	85.2	**78.8**	71.6	**61.9**	63.2
친 구	**75.7**	73.0	**83.2**	79.3	**76.1**	71.6	**67.3**	68.9
인 터 넷	**78.6**	72.2	**89.1**	82.8	**78.1**	70.2	**68.3**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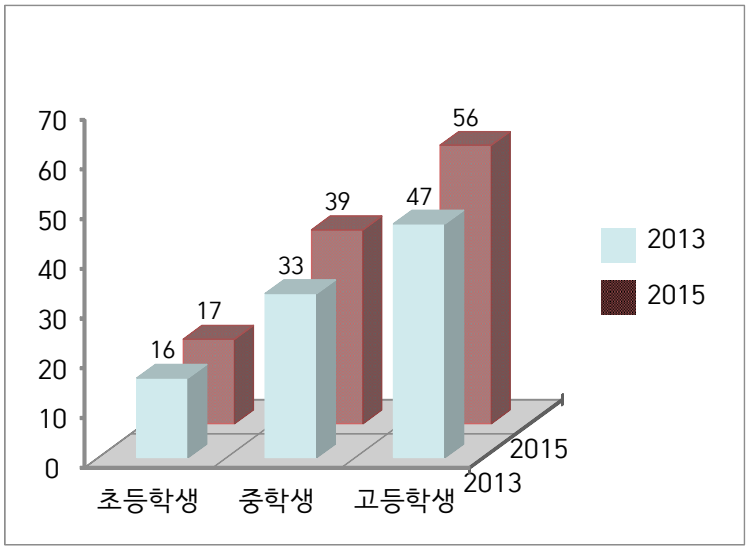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사회 생활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의 윤리·정직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아직 미약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교생의 윤리·정직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위주의 경쟁교육과 가정의 윤리교육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덕의식이 황폐화되고 있고 교회도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문별 분석에서도 전 부문에 걸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심지어 고교생이 가장 정직하다고 느끼는 부문에서도 초등학생에서 가장 부정직한 부문의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2) 주요 윤리·정직 의식 항목 분석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항목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한 2015년도 조사 결과 초등 17%, 중학 39%, 고교 56%가 괜찮다고 응답하여 2013년의 초등 16%, 중학 33%, 고교 47%와 2012년의 초등 12%, 중학 28%, 고교 44% 보다도 계속 낮아져 전체적으로 윤리의식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지고 있는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및 부패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회 등 종교계에서조차 세속적인 물질주의가 만연한 모습이 보이면서 청소년의 배금주의 가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 돈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해치는 사건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삐뚤어진 가치관과 엄정한 부패 척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그림2.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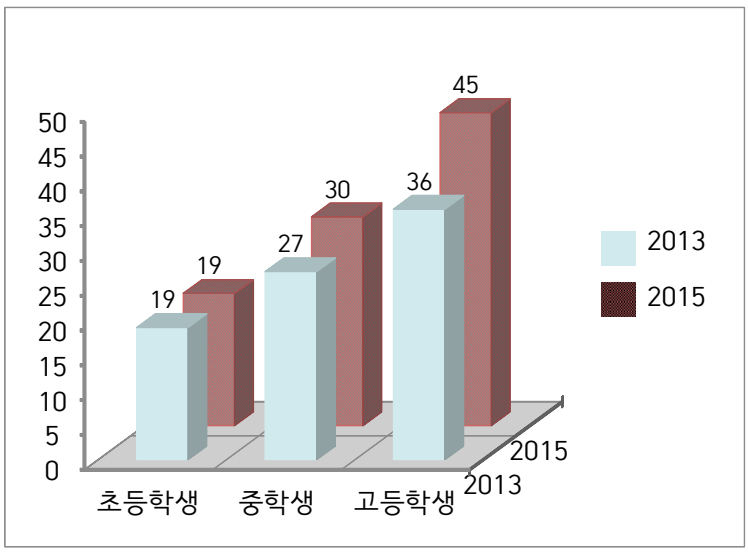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큰 죄를 짓고도 실제로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잠시 감옥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부당 이익으로 취한 부를 갖고 그 뒤 삶을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부정이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도 이를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할 텐데 그런 부패방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많은 일부 인기 연예인들이 도박, 마약, 탈세 등 죄를 짓고도 6개월 정도 쉬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활동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에서 청소년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 19%, 중학 30%, 고교 45%가 그렇다고 응답해 2013년의 초등 19%, 중학 27%, 고교 36% 보다도 타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교육을 받을수록 그리고 사회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인성 회복을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정의 구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3.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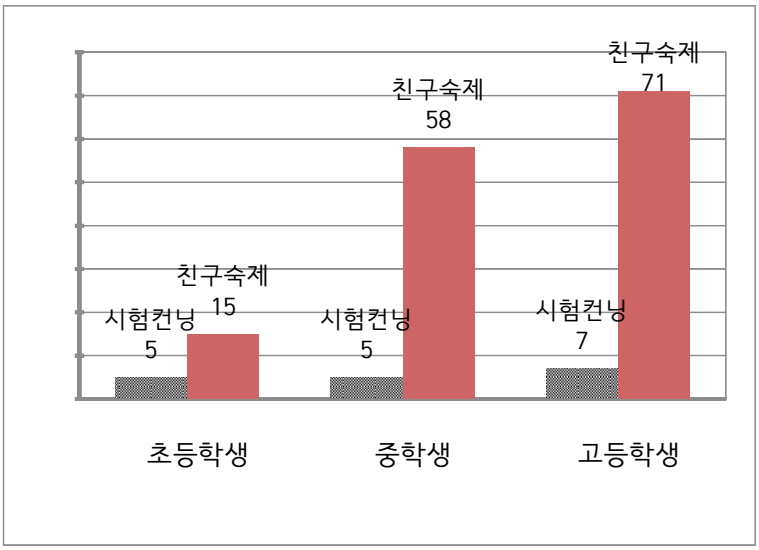


세 번째, 청소년들은 잘못에 대해 타인이 보고 있거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정직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타인이 못 보거나 자신에 대한 처벌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 항목인 '시험 보면서 컨닝한다. 는 초등 95%, 중학 95%, 고교 93%가 컨닝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항목인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낸다.' 에는 초등 15%, 중학 58%, 고교 71%가 괜찮다고 응답하였다. 시험에서의 커닝처럼 잘못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게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친구의 숙제를 베끼는 것처럼 잘못이 발각되기 어렵거나 발각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거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직보다는 거짓으로 위기를 넘기거나 편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절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가치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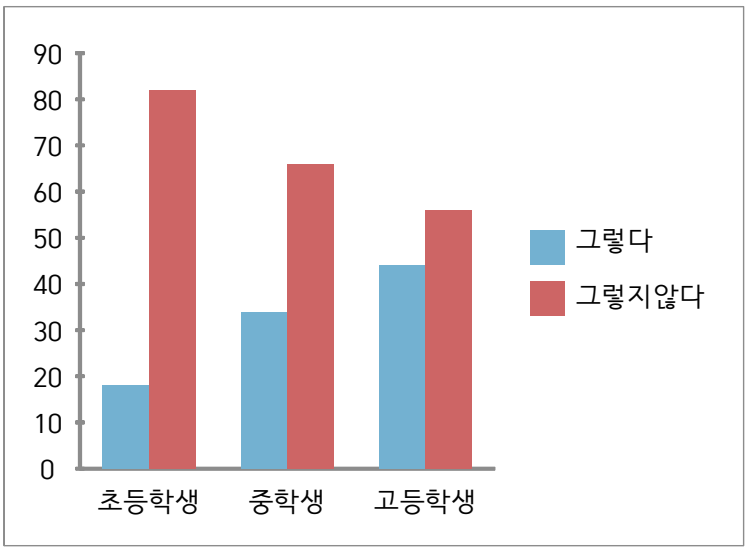
부패기준을 자신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처벌과 제재 유무에 따라 판단을 하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청소년들의 가치관형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이는 이 항목뿐 아니라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는 항목은 45% 가 그런다고 한 반면 탈세 항목에는 5% 만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응답하였고 '문구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는 항목에 4%만이 그런다고 응답한 반면 '학용품을 산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 시험 컨닝 또는 친구숙제를 베껴서는 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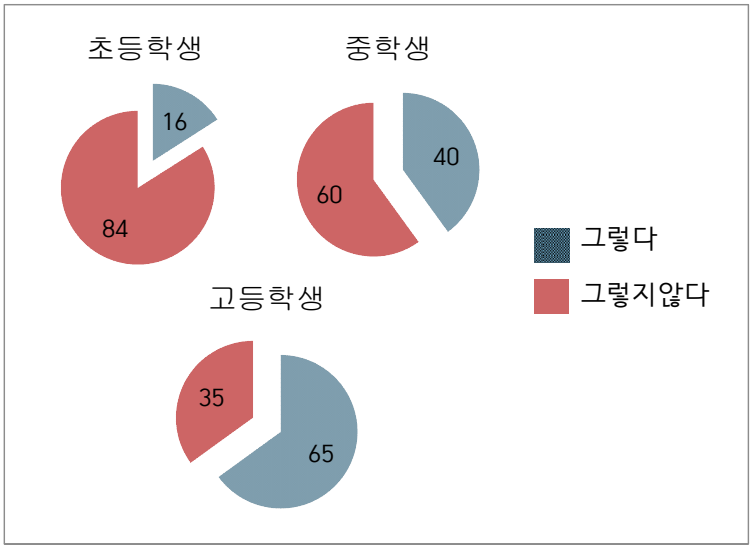
네 번째,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는 항목은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 18%, 중학 34%, 고교 44%로 학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상급으로 진학을 할수록 입시경쟁 체제에 매몰되어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다섯 번째,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다'는 항목은 초등 16%, 중학 40%, 고교 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 는 항목은 초등 26%, 중학 46%, 고교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 갈수록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등 발달되는 기술에 비해 청소년의 정보윤리 교육이 변화에 맞추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6.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이상에서처럼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사회생활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의 정직·윤리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투명시스템과 투명가치가 아직 미약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교생의 정직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나 가정 그리고 종교계 등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면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윤리·도덕의식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기독교의 대응 방안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수록 그리고 사회와의 접촉 기한이 늘어날수록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어른들의 인식이 팽배한 사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문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풍토, 여기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가치관 자정 역할 상실과 입시와 출세 지향의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가세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윤리·정직 의식은 검게 물들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진학률은 84%로 세계 1위의 학력을 가졌으나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왕따와 악성댓글과 언어폭력 및 교권의 실종은 일반화될 정도로 학교의 법과 질서는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더구나 청소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특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속에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만이 가속화되어 국민의 행복지수가 OECD 36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두운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물들어 가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윤리·정직 의식 정립을 위한 전반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교육계와 학계, 미디어,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윤리의식과 정직성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청소년 윤리·정직 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기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와 협력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기독교인 스스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청소년은 어른의 거울이란 말이 있듯이 어른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청소년의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 특히 사회의 모범이 되고 청소년의 건강한 롤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기독교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세상의 물질보다 비전과 제자도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나 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투명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 많아 질 때 이를 따르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기독교의 영향력도 증대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 대상의 교회 학교 내용과 형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존 형식으로 진행된 윤리·도덕 교육은 정답만 찾는 교육으로 암기되어졌을 뿐 청소년들 자신의 윤리·도덕성은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회 학교의 진행 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회 학교도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와 미디어를 연계한 참여식 체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재 내용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

로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변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용서, 배려, 나눔, 공의, 정직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주제에 대해 팀별로 협의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만화나 UCC콘텐츠 형태로 함께 만들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기독교적 가치를 고민하고 체험하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경의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인물들의 감동과 성공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고 각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스터디 하여 이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발표하며 공유함으로써 흥미와 함께 건강한 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75.8%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폭력물과 음란물 및 도박 등 유해 콘텐츠에 빠져 중독되거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행동으로 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교회 공동체 강화 및 청소년 복음 확산 등에 활용 할수 있다. 특히 교회 학교의 청소년들과의 스마트 소통과 기독콘텐츠의 공유와 교회 UCC 공동제작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교회학교의 활성화와 건강한 미디어 사용과 건전한 기독교 가치관 확산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교회에서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 미디어 사용의 윤리와 콘텐츠의 영향력 및 이들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참고로 스마트선교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육만으로도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을 익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콘텐츠를 포함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미디어를 통해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미디어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기독교 미디어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 미디어와 언론은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을 확산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계도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세상에서의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크다. 기독교 미디어와 언론에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건강한 메시지가 담겨 청소년들에게도 확산 될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설교와 간증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 청소년이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KBS에서 방영된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같은 고품질 콘텐츠와 사랑, 희망, 배려, 정직, 나눔, 인내, 봉사, 공의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콘텐츠를 기독교 미디어들도 만들고 이를 미디어에서 확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 청소년들이 함

께 참여하는 퀴즈 프로그램, CCM 오디션 프로그램, 기독교 연예인 가족이 함께 하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등 청소년에게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가정에서의 소통과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은 어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의 윤리와 정직지수는 초등학교 88, 중학교 78, 고등학생 6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영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릇된 판단으로 망치지 않도록 학교 성적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과의 건강한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밥상머리 소통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하여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인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건강한 미디어 사용과 건전한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련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미디어사용과 건전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이 파급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가 된다. 예를 들어 매월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에서 엄선하여 소개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인성 클린콘텐츠를 함께 보고 토론하며 미디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가정의 건강한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기독교 가치관을 확산하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부정 부패에 대한 기독교의 엄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로 지탄 받는 교역자가 교회 내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는 다면 기독 청소년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청소년의 윤리와 도덕 의식 결핍은 다분히 우리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독교의 엄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교회에서 누구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즉 기독교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클린한 조직 운영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죄와 부패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기독교 내 시스템이 구축되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부정부패가 정화되고 이는 특히 기독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의미의 도덕 윤리 학습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기독교인이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설파하셨고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기독교인 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거짓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정직과 성실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

조하셨다. 37위의 대한민국의 부패 자화상이 그대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제 학교와 가정 및 미디어 그리고 교회에서 윤리와 정직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장려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안창호 선생은 또한 참되고 성실하게 힘써 일하는 무실역행과 도덕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의 초석이 된다고 설파하셨고 현재 선진강국들은 이러한 전통이 정립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정립되어야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국가의 밝은 미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의 확산은 청소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소명의식을 기독교인 모두가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청소년 윤리·정직지수', 2016
경찰청, '범죄자 연령별 추세', 201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2015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보고서', 2011
황인호, '청소년 무너진 윤리의식. 사회 만연한 부패 때문', 국민일보, 2013
전병선, '목회도 스마트폰으로, 50-60대는 공부중', 국민일보, 2014.5.27
이수진, '나만 잘살면 남의 아픔 관심 없어요', 기독공보, 2016.1.11.
이지희, '4/14 윈도우포럼, 미디어 선용법 집중 논의', 크리스천투데이, 2016.4.11

(논평)

기독인으로서 청소년의 윤리·정직 의식에 대한 성찰의 계기 마련

반갑습니다. 이민영 바른인재키움포럼 대표이며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독교학문연구회의 춘계학술대회에 참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안종배 교수의 <청소년의 윤리·정직 의식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 방안 모색 연구>라는 발표내용을 보고 3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선(善)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간단치 않을 텐데 현대사회의 복잡다변한 구조 속에서 선(善)하지 않는 역방향으로 기울어 가는 것과 또한 우리나라의 정직지수가 형편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논고의 서두에 기재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100점만점의 절반가량인 56점으로 37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창피할 노릇입니다. 나부터 더 정직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더 정직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이에 편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흥사단에서 조사한 친구,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등 5개 영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 지수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윤리나 정직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윤리·정직지수 점수가 78점(100점 만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점, 1등, 선두 등 경쟁구도 속에서 자녀들의 학교성적이 78점이었다면 학부모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공부해서 일류대학에 가겠느냐'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정직지수가 78점 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서 어떻게 일류국가가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게 현실이라 봅니다.

세 번째는
논고의 끝부분에 안교수가 제시한 여섯 가지 방안을 보면서 놀란 가슴이 진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는 필자의 혜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대표, 선교아카데미 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장 등 청소년의 정직과 윤리문제에 대하여 관여했던 전문가의 제안이 매우 적절해 보였습니다.

1) 무엇보다 기독교인 스스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청소년 대상의 교회 학교 내용과 형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미디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4) 기독교 미디어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5) 기독교 가정에서의 소통과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6) 부정 부패에 대한 기독교의 엄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직이나 윤리의 문제가 꼭 기독교나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진단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란 일반적 통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롬12:17) 등 성경에는 '정직'이란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해야만 합니다.

이번 안종배 교수의 정직과 윤리에 대한 6가지 제언을 보면서 각자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영>
문학박사, 시인, 바른인재키움포럼 대표,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전, 전주대 대외협력홍보실장, 전,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 전,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